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20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순조롭게 하소서 -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이기는 이가 되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6.30(목) 오전10시 구월동집회장소

2. 인천 교회 책임 봉사자들 지역 섬임 방문 안내

인천 교회는 책임 봉사자들의 지역간 섬임을 위해 매월 1회 주일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주일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 2016.7.3일(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3. 목회자 세미나 (갈라디아서)

- ① 일 시 : 6.28(화)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 회비없음)

4. 제 5회 영아플 집회

- ① 일 시 : 7.29(금) ~31(주일)
- ② 장 소 : 춘천 아름다운 세상
- ③ 대 상 :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 봉사자, 학부모
다음세대 관심있는 모든 지체들
- ④ 회 비 : 중고등부, 대학생 30,000원 어른 70,000원
- ⑤ 신 청 : 6.26(주일)까지 각 지역 중고등부 봉사자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6.13(월) ~ 2016.06.19(주일))

지역	1지역 (66명)					2지역 (108명)					3지역 (102명)					4지역 (110명)					5지역 (104명)					6지역 (49명)					7지역 (19명)		계							
그 룹	학 익	인 홍	신 년 1	청 년 2	대 학	간 사	구 수	만 수	장 수	노 년 1	노 년 2	주 안	청 년	연 수	동 촌	송 도	선 학	가 자	석 남	신 년	가 정	연 회	청 년 1	청 년 2	검 람	검 단	삼 산	부 평	청 진	산 곡	효 성	작 전		계 산	임 학	종 산	운 남			
인수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요상	15	12	17	9	8	5	11	16	14	11	11	18	18	9	25	18	18	26	15	11	8	9	11	18	12	12	9	11	9	30	27	23	24	9	12	14	14	10	9	558
기 도	5	8	9	3		3	2		5	6	2	1		9	5	12	12	6	D V D 집회										5	12	12	9	8	8	7	2	5	6		162
그 룹	5	9	8	9		2			2	9	7	9		9	8	12	18	10	D V D 집회										7	16	14	18	9	10	7	5	7	8		218
아침부흥	9	7	8	7		3														5						2		10	22	16	13	11	8		6	3	7	137		
어린이	11					21					10					21					15					4					6		88							
아빠노래						11					11					5															4		31							
중고등부	8					4					10					11					11					9					5		58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6. 26. 16-26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2016년 봄 장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4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봉사

고후3:5-6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사람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본다면, 모든 일이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함을 더욱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체험하기란 쉽지 않다.

각지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각지 교회 책임 형제들이여! 주님을 섬기는 일중에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이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들, 즉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과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이다.

바버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이 말은 참으로 체형적인 말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지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럴 때 그는 즉시 멈추었다. 이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문제이다. 다윗이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춘 것은 다윗이 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의 봉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적어도 한번은 철저히게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다만 섬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적어도 한번은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 두 성경 구절은 각각 서로 다른 두 근원을 언급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언급된 두 근원은 ‘우리’와 ‘하나님’이고, 6절에서 언급된 두 근원은 ‘문자’와 ‘영’이다. 비록 이 두 구절이 네 근원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봉사가 네 근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네 근원은 실지로는 오직 두 근원이다. 첫 두 근원은 후반의 두 근원 안에 체현되어 짝을 이루고 있다. 마치 ‘우리’가 ‘문자’와 짝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영’이 하나이다. 마치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지로는 우리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듯이,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려한다면 반드시 문자에 의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반드시 그 영에 의해 섬겨야 한다. 마치 문자에 따른 봉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하는 봉사이자 우리자신으로 말미암은 봉사이듯이, 그 영에 의한 봉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봉사이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봉사이다. 그러므로 오직 두 종류의 봉사와 두 종류의 근원이 있다. 한 종류는 문자에 의한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며, 다른 한 종류는 그 영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우리의 봉사가 첫째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둘째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만일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혹은 역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외의 다른 셋째 근원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의 두 근원을 세밀히 점검해 볼 시간이 없고 다만 이 둘 중 한 가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봉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봉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으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물론 하나님을 위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봉사는 우리 자신을 그 근원으로 취하고 문자적인 규례와 의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의해 수행된다. 그것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독립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필요가 없이, 우리 자신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봉사는 이와 같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

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영에 의해 살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거절하고 영 안에서 영의 느낌에 의해 살고 영의 인도를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오직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봉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런 종류의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종류의 봉사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행동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봉사는 그분을 만나고 접촉함으로써 수행된다. 우리는 한 편으로는 그분을 접촉하면서 그분을 섬긴다. 우리는 그분과 떨어져 설 수 없고 그분과의 접촉을 놓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분 밖에서 우리의 열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서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의 봉사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어떤 영적가치도 없다.

어떤 봉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 봉사 안에서 하나님과 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한편으로 안에서는 그분께서 운행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밖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신 결과로 산출된 활동이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어떤 종류의 봉사와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에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봉사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입지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없다.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은 다만 하늘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만 하실 수는 없다. 단지 우리가 잠시 그분을 생각한 다음, 그분을 접촉하거나 그분과 연합됨이 없이 즉시 열정적으로 그분을 섬길 수는 없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우리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자신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전혀 없다.

사도는 새 언약 안에서 자신이 수행한 봉사가 자신으로부터 나오거나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봉사는 그 이상의 문제이다. 그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기쁘고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다! 그는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굴복시키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통제아래 뚫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점유되고 종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속에서 모든 입지를 얻으시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 안에서 운행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수고하고 봉사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께 감동 받았으므로 밖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이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 충동받지 않았다.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의 속에서 그와 연합하시고 그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 이 봉사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가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지로는 그의 속에서 운행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섬기신 것이었다.

바울은 구원 받기 전에 사울이었다. 그때도 역시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왔다. 바울은 그가 받은 종교적인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극도로 열심을 내었다. 그는 강한 의지와 큰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고 재능과 용기도 있었다. 그는 이러한 자질을 갖고 유대종교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입지나 하나님의 요소가 전혀 없었다. 그러한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나 하나님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그 자신에 의한 봉사가 었다. 그 당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용기와 재능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그가 구원 받은 후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사셨고 그와 하나님이 결합되었다. 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의 본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느낌이 그의 느낌이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의 관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모든 것, 곧 그의 내용이 되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 입지를 드렸을 때, 즉 그와 하나님이 함께 교통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그에게 복음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느낌을 주셨다. 그의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산출된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다만 일이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흘러나오심, 곧 하나님의 생명의 흘러넘침이었다.

봉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열정과 결심과 역량으로 해낼 수 없으며, 또한 단순히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따라서 해낼 수도 없다.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우리의 봉사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봉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영(spirit)이어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운행하시고 지시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 봉사만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하나님에 의한 봉사이다.

(‘영과 영안에서의 봉사’ 제8장에서 발췌)

하나님이 오늘날 필요로 하시는 사역(1)

딤후4: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세 방법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초신자를 인도하는 것으로, 특별히 젊은이를 인도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성도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고 그분의 생명의 풍성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세 방법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중(輕重)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1. 복음을 전파함

(1) 힘을 다하여 전파함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는 넓게 하고 많이 하고 잘하고 분량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 만일 인수증가가 없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 전파의 문제에서 태만함이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 전체의 인구가 오십 년간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국이 포화나 균형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할 필요 없이 나라 전체를 그런 식으로 포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만일 교회 가운데 삼십 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로 온 천하에 가서 복을 전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귀을 부인이 되기를 배우려고 하지만, 그럴 때 결국 영에 속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거기에 귀용(蓋用) 부인이 있든 없든 복음은 계속해서 전전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 청년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일어나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각 교회는 그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복음지를 집집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보내야 하고, 또한 야외에서 그들을 지어 복음을 전하고 포스터를 붙여야 한다. 모든 가정과 학교와 기관을 복음 포스터로 가득 채워야 하며, 우리는 영에 속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

산두(汕頭)에서는 아직 영적인 특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오늘날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자신 방식에 굳어져 버렸으며, 어떤 형제자매는 거듭난 지 십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대로이다. 오늘날 우리는 젊은 이들이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년들을 격려하여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한다. 많이 낳수록 더 좋다. 어떤 새로운 사람은 비록 보기에 거저된 자 같을지라도,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마치 공장에서 나온 물건과 같아서 어떤 것들은 상품이고 어떤 것들은 하품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연히 그다지 어떤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언제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보다 낫다. 나에게서는 열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세 명은 죽고 지금 일곱 명이 남았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

녀를 낳았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만일 한 교회가 몇 십 년 동안 그저 몇 십 명만 모여서 집회를 한다면, 그 교회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니다.

(2) 비결은 얼굴이 두꺼워지는 것에 있음

복음을 전하는 비결은 얼굴이 두꺼워지는 데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가야하며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만일 한 자매가 큰 길에 서서 복음지를 뿌린다면, 한 면으로 복음지를 뿌리고 또 한 면으로는 큰 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며, 울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경중 경중 뭘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송상절 박사가 좋은 예이다. 룻의 딸들은 아버지 룻과 정을 통하여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았다. 이 일은 물론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의 육신조자도 모압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분석이 필요치 않다.

(3) 대상을 선별하지 않음

한번은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물었다. 무디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또, 『만일 당신이 도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도를 말함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었다. 무디는 『친애하는 형제여, 격정할 것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은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미리 예정하신 것일입니다. 당신이 다만 가서 전하기만 하면 예정된 사람은 자연히 구원받을 것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육체이고 복음을 전해도 육체이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편이 낫다. 만일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이 사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 만일 천 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사백 명이 다시 돌아가서 죄를 범한다면, 그래도 아직 육백 명은 남아 있다. 그 사백 명이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은 적어도 구원은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복음 전하는 데에는 식별하는 것이 필요치 않고 다만 눈멀어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를 다스리고, 일을 처리하고,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에는 안목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오직 전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바닷 속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잡히면 끌어올리지만 하면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담당할 필요가 없으며, 분별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고기를 잡는 사람은 식별해야 하지만, 고기를 잡는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오직 고기를 잡는 사람만이 염려할 필요가 있을 뿐 고기를 잡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